

은혜받은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받으면 다른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보디발의 집에서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누군가의 눈에 좋게 보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좋게 보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직 내 안에 은혜를 가득 담고 있는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은혜가 크게 임하면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은혜는 간절히 사모하며 풍성히 받아야 합니다. 내 안에 은혜가 임하면 내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가정도 교회도 무조건 은혜를 많이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혹시 은혜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잘 기억하시고 삶에서 밀어내야 합니다. 오늘 은혜받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은 다 내려놓으시고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용서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셉에게 임한 은혜의 정점은 용서가 아닙니다. 은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역사하심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능력 있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받은 삶의 참 아름다운 결말입니다.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그곳에 참 은혜가 있습니다.

요셉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은혜를 입은 것도, 노아가 은혜를 입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인도자

찬송 197, 302, 368, 411장 (중택1)

주기도문 다같이

* 예배 후 조상들이 남긴 믿음을 서로 이야기하며 그분들의 유덕을 기릴 수도 있습니다. 새해 계획을 세우며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나누면서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집니다.

MYUNGSUNG CHURCH

20
24

설날
감사예배

2024

설날감사에배

* 가능하면 가장이나 신앙의 연장자가 예배를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목 도 **막 12:29-31** (말씀을 인도자가 낭독)

찬 송 **288, 301, 408장** (중 택1)

성서교독 인도자: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다같이: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인도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다같이: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인도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다같이: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다같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 아 멘 -

기 도 **가족 중**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설 명절에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반복했던 잘못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오니 정결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힘써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온 가족이 마음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봉독 창 50:15-21

- 15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 16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 17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니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 18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 19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 20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 21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말 씬 **은혜가 내 안에 임할 때**

내 안에 은혜가 들어오면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과 관계없이 그 은혜가 주는 힘과 능력으로 기쁨을 갖게 되고 힘을 얻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은혜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을 통해 은혜받은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삶이 변화됩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역사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를 보면 각 장마다 베드로의 은혜받은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소망의 모습, 거룩한 삶의 모습, 인내의 모습, 청지기적 사명의 모습입니다. 이 네 가지는 요셉에게서도 다 발견되는 귀한 모습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소망을 갖고 살았으며, 애굽에서도 거룩한 삶을 지켜냈습니다. 그는 억울함과 답답함 속에서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렸고, 맡겨주신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요셉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환난과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 또한 그러한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셨습니다.